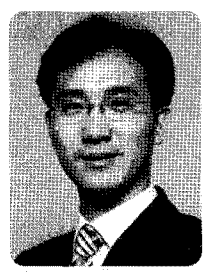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공급불안과 한국경제



김 화 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확대되는 국제곡물 공급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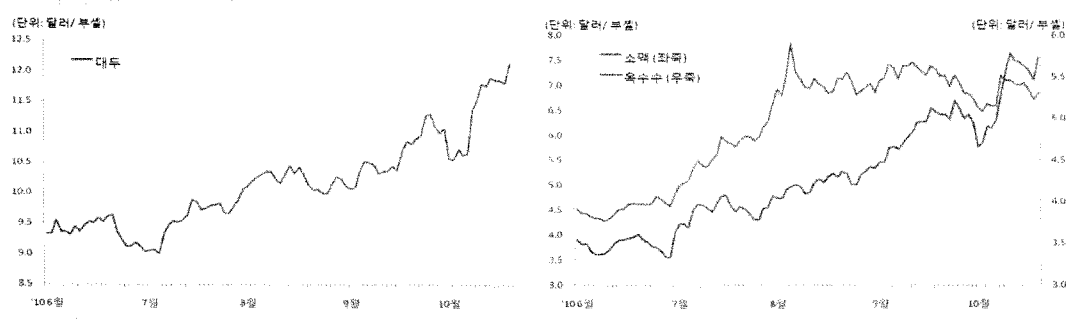
2010년 하반기 들어서 소맥, 대두, 옥수수 등 곡물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6월 1일 가격 대비 10월 20일 현재 옥수수 가격은 62%, 소맥 가격은 52%, 대두 가격은 30% 상승하였다.

2010년 여름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 가뭄, 홍수와 같은 기상재해가 발생하여 공급불안이 확대된 것이 가격상승의 주원인이다. 러시아는 기상관측

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맞아 130년 만에 최악의 가뭄 피해를 입었으며, 중국은 랴오닝 성 일대의 폭우로 2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가뭄으로 인해 2010년 소맥 생산량이 전년 대비 26% 줄어들고, 이에 따라 GDP가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곡물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전 세계에 곡물 공급불안이 확산되었다. 9월과 10월에는 미국 농무부의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가 계속 수정되면서 곡물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그림 1〉 국제곡물가격 추이 (2010.6.1.~10.20.)



주: 1)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근월물 선물가격 기준
 2) 부셸은 곡물의 무게 단위로 1부셸당 소맥과 대두는 27.2kg, 옥수수는 25.4kg
 자료: KoreaPDS.

문제는 기상이변의 빈도가 늘어나고 파급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곡물의 공급불안 및 가격변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발생 시의 강도도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기상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곡물가격 변동 폭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가격변동 주기는 짧아지고 있다. 곡물가격 변동은 신흥국에 인플레이션 우려와 식생활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농식품 가격 상승과 임금인상이 수출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 세계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식량 공급불안 현황과 한국의 자급 및 수입 구조를 점검하고, 불안 요인이 더욱 커졌을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곡물가격 전망과 수급불안의 경제적 파급효과

2010년 여름 북반구에 기상재해가 집중 발생한 데 이어 겨울에는 남반구에도 기상이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곡물 공급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수온 현상인 라니냐가 2010년 겨울 브라질 등 남반구 곡물 생산지대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2010/2011년도 소맥 생산량은 전년 대비 5.1% 감소하고, 대두는 같은 기간 2.4% 감소

할 전망이다(기본 시나리오). 그러나 극단적인 기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악화 시나리오).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곡물의 공급불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곡물가격은 하반기에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 약세로 인한 투자자금이 곡물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금융요인에 의한 투자(기)수요가 늘고 있으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2011년도 인도의 쌀 소비는 14.7%, 중국의 대두 소비는 1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0년 7월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7월 셋째 주 소맥의 비상업 거래 순매수 포지션이 양(+)으로 전환된 후 8월 넷째 주 2만 2,518 계약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수급 전망과 달러/유로 환율 등 他 금융변수를 기초로 주요 곡물의 2010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평균가격을 추정하였다. 소맥 -5.1%, 대두 -2.4%, 옥수수 2.9% 등 곡물생산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2010년 하반기 소맥 평균가격은 상반기 대비 35.7%, 대두는 20.5%, 옥수수는 17.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상이변이 확산되어 공급이 더욱 감소할 경우(소맥, 대두 -10%, 옥수수 -5% 생산 감소), 소맥은 상반기 대비 52.7%, 대두는 42.2%, 옥수수는 39.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상승추세는 남반구의 생산량 증감에 따라서 2011년 1/4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2010년 주요 곡물가격 전망

(단위: 달러/부셸, %)

구분	상반기 평균 가격	하반기 평균 가격		상반기 대비 하반기 상승률	
		기본 시나리오	악화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악화 시나리오
소맥	4.85	6.58	7.43	35.7	52.7
대두	9.57	11.53	13.61	20.5	42.2
옥수수	3.65	4.27	5.10	17.1	39.8

자료: 삼성경제연구소(9월 전망 기준)

200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입 곡물 가격 상승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는 0.27~0.5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맥, 대두, 옥수수 3대 수입곡물의 가격이 기본 시나리오 상승 폭대로 상승하는 경우, 생산자물가는 0.12%p, 소비자물가는 0.27%p 상승할 것이다. 악화 시나리오대로 곡물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생산자물가가 0.22%p, 소비자물가는 0.54%p 상승할 것이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곧바로 국내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4~6개월 정도의 시차 후에 물가상승으로 파급될 것이다.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입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생산자·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차가 존재한다.

국제곡물가격이 2010년 6~7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시차 4~6개월을 고려하면 11월 이후부터 가격인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은 식품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어 장바구니 물가와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소맥가격이 오르면 시나리오별(기본, 악화) 가격변동에 따라 제분(밀가루) 가격이 26.8~39.6% 상승하며, 대두가격이 오르면 유지 및 식용유 가격이 5.5~11.2%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식품가격 상승은 체감물가 악화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도 문제이다.

▣ 한국의 식량 자급 및 수입 구조

이렇게 국제곡물의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의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하락 추세를 지속하여 2008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49.2%와 26.2%를 기록하였다. 쌀은 국내생산으로 거의 자급이 가능하지만 쌀 이외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매우 낮으며 특히 밀과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8년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소맥이 0.4%, 옥수수가 0.9%, 대두가 7.1%이다. 식생활 변화로 인해 식용 밀과 사료용 옥수수의 소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해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OECD 주요국은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곡물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어 공급 충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5~2007년 3개년 평균 한국의 곡물자급률 27%는 OECD 31개국 중 28위에 해당하며 한국보다 곡물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일본, 포르투갈, 네덜란드에 불과하다.

공업국인 슬로바키아(133%), 체코(130%), 스웨덴(127%), 독일(105%)도 곡물자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국내

곡물가격의 안정화 도모와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100%가 넘는 곡물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수입 곡물인 옥수수, 소맥, 대두를 대부분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옥수수는 매년 약 800여만 톤을 미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해 대부분을 사료용으로 소비하고 있다.

소맥은 약 300여만 톤 규모를 수입하는데 주요 수입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 우크라이나, 중국 등이다.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두는 연간 수입액 약 130만 톤 중 95%를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의 곡물수입은 영미계 곡물 메이저와

일본계 종합상사에 의존하고 있다. 3대 곡물 수입의 약 57%(2003~2008년 평균)를 카길, ADM, BUNGE, LDC 등 세계 4대 곡물 메이저가 차지하고 있다.

3대 곡물의 4대 메이저 수입 비중은 옥수수 62.4%, 소맥 46.8%, 대두 46.3%이다. 또한 영미계 곡물 메이저뿐만 아니라 마루베니와 같은 일본계 상사도 한국 곡물시장에서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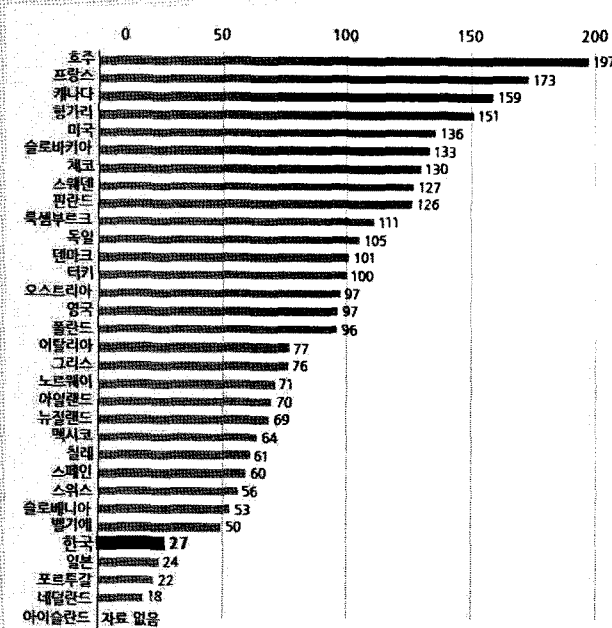
▣ 제안 및 시사점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응하고 물가 불안심리 진정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곡물가격 상승은 경기상승세가 둔화될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의 체감경기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최대 상승 폭은 0.54%p로 현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물가안정목표 범위(2~4%)를 넘어설 정도의 충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곡물가격 상승이 불안심리 확산으로 이어져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긴축 등 거시적 차원의 대응보다 수급안정 등 미시적 차원의 대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수요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일시적

(그림 2) OECD 국가의 곡물자급률 (2005~2007년 평균)



주: 곡물자급률 = 생산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재고증감)
 자료: FAO, Food Balance Sheets, 를 토대로 삼성경제연구소 계산

공급충격에 따른 물가불안 현상에 대해 금리인상 등 거시적 대응을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곡물가격 변동에 一喜一悲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흥국 소득향상으로 인한 수요 확대 및 기상재해로 인한 공급불안 등으로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입구조 개선, 농업생산성 제고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동 구매 및 직접 구매 확대와 해외 농장개발로 수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물과 선물 시장을 통한 곡물의 비축재고량을 늘리는 한편, 곡물의 공동 구매 및 직접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 공동구매로 구매여력을 늘리고, 수요자가 직접 수출국 현지에 진출해 곡물을 구입하는 '직접 구매 방식'을 적극 활용해 가격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개도국 농업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공급 루트의 다양화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ODA(공적개발 원조) 및 기술 이전 등을 활용해 곡물 생산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광물 자원과 같이 곡물에도 자주 개발을 및 도입을 개념을 관리대상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적 곡물 메이저를 육성해 글로벌 메이저의 과점화에 대응하고 가격변동 리스크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한국 중소 곡물수입회사의 합종연횡을 유도하고 아시

아 내 중소 곡물 수입회사의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등 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레드오션화된 구미나 중남미보다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곡물 메이저를 우선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 종합상사가 '해외 구입-국내 판매'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생산-유통-판매를 총괄하는 국외 거래를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농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품종개발, 新영농기술 도입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자급이 가능한 쌀은 현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밀은 자급률을 우선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밀은 상대적으로 수입단가가 높고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수입 수요가 크기 때문에 자급률 제고의 효과가 타 곡물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산업 발전을 통해 농업생산성과 생산기반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의 발전은 국내 농산물, 식자재 등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 증가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

▶ 필자 프로필 ◀

- Texas A&M대학 농경제학 박사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 국제 곡물협의회 위원
- 국제 유가전문가협의회 위원
- APEC SME Crisis Management Center(SCMC) Expert.